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시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괄 박한선실장

☑ 감 수 윤희성 본부장

발행인 장영태 원장

■ 발행처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IMO 회의 잠정 연기 결정

☑ 코로나19로 인해 IMO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된 회람서가 발행됨 ^{a)b)c)}

- 2020년 3월 6, 12, 17일에 발행된 회람서(Circular Letter No.4213 및 No.4213/Add.1~2)에 따르면, IMO 사무국은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WHO와 영국 정부의 권고사항 혹은 지침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
 - 향후 개최될 예정인 다른 회의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 또한 가능한 빨리 제공될 것이며, 대표단 및 회의 참석자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기된 회의 일정 변경에 관한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예정임

〈표 1〉 잠정 연기된 IMO 회의 목록

본 회의 예정일	회의명
2020.3.16.~3.20.	제107차 법률위원회(LEG) : The Legal Committee
2020.3.23.~3.27.	제7차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작업반회의(ISWG-GHG) :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2020.3.23.~3.27.	제33차 E&T그룹(IMSBC) : The Editorial & Technical Group (IMSBC)
2020.3.30.~4.3.	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2020.4.20.~4.24.	제44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 The Facilitation Committee
2020.4.27.~5.1.	제2차 정보통합 전문가회의(EGDH) : The IMO Expert Group on Data Harmonization
2020.4.30.	항만 심포지엄 "해양 공급망에서의 항만 운영 데이터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 : The Port symposium "A Holistic approach to standards for port operational data in maritime supply chains"
2020.5.13.~5.22.	제102차 해사안전위원회(MSC) :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자료: www.imo.org



- У 또한 2020년 3월 12일에 발행된 회람서(Circular Letter No.4220)에는 IMO 본사 건물을 2020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2020년 3월 4일 IMO 본사에서 근무하던 회의 통역자 중 한명이 무증상으로 근무하던 중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IMO 사무국은 2020년 4월 15일까지 모든 외부 행사 및 단체 방문 등을 취소하기로 밝힘
 -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유연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함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IMO는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가 작성한 선원 대상 「코로나19 대응 지침」도 공식 배포(Circular Letter No.4204/Add.4)하였음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 3월 11일에 WHO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며 국제 무역 및 여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이에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등을 포함한 UN 기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원을 대상으로 한「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작성함

▼ 연기 결정된 주요 IMO 회의에서는 아래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었음

〈표 2〉 IMO 회의 주요 논의사항

주요 회의	회의명
제107차 법률위원회(LEG)	 허위등록선박 근절을 위한 IMO 선박등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 IMO 사무국에서 GISIS* 모듈에 선박등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현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 * GISIS(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IMO 사무국이 운영하는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고 작업반 결괴를 기반으로 추가 논의 예정 ・ 자율운항선박 관련 협약 개정요소 식별(RS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작업절차 확정 - 우리나라는 LLMC(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및 BUNKER(선박연료유협약) 협약에 대한 협약 개정요소 식별(RSE) 초안문서 개발에 참여 예정 ・ 선주책임제안 권리박탈 통일해석 기준 마련을 위한 신규의제 승인 - 각국 법원·행정당국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21년 완료를 목표로 금번 회의부터 정식의제로 논의 예정
제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 선박으로부터의 GHG 배출 감축 - 선박 온실가스 감축 IMO 초기전략 이행을 위한 단기적 감축 방안 검토 관련 논의 예정('23년까지 합의 목표)





주요 회의	회의명
	· 평형수 내 유해생물 - 평형수 처리 장치 탑재 시 시운전 및 평형수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한 평형수 관리 조약의 개정안이 금번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 · Bio-Fouling(선체부착생물) 관리 가이드라인 - Bio-Fouling 관리에 관한 IMO 협약 제정 논의 예정
제44차 간소화위원회(FAL)	 FAL협약에 대한 자율운항선박 규정식별작업(RSE) MSC에서 승인한 규정작업체계를 활용하여 금번 회의까지 FAL협약의 규정식별작업 완료 예정 해사부패가 국제무역, 항만관리, 선원에 미치는 영향 해사부패 해결을 위해 'FAL 협약개정 및 IMO 지침 또는 모범사례 Code 개발'에 대한 신규작업과제를 승인하여 금번 회의부터 '21년까지 논의하여 작업 완료 예정
제102차 해시안전위원회(MSC)	· 자율운항선박 운용 관련 규정 검토 작업 - RSE 제2단계 작업결과가 금번 회의에 제출되어 논의 예정 - 자율운항선박 관련 특정용어 사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용어에 대해 금번 회의에서 논의 예정

주: 각 회의별 2020년에 논의될 대표 의제에 대하여 정리함

자료: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2019), 「2019 IMO 연간활동백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MSC, LEG, FAL 등 주요 회의 연기로 자율운항선박 RSE 직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 자율운항선박 RSE(Regulatory Scoping Exercise) 수립이 지연되면 자율운항기술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 표준 및 규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지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20~'25년, 총 1,603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바 있음 ^{d)}
 - 금번 회의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운용 시 영향을 미칠 규정에 대한 식별 작업 결과가 공유되고 다음 단계 진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정부 및 관련 산업계는 자율운항선박 RSE 지연에 대비하여 향후 기술적·행정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MEPC, ISWG-GHG 회의 연기 또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작업 및 선체부착생물 관리 방안 등 중요 논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됨





- ▶ 환경보호 관련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작업이 목표했던 2023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원래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 선박에 대한 단기적 감축 방안을 검토하여 2023년까지 최종(안) 채택할 예정이었음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 회의도 연기되어 향후 목표 기한 내에 작업이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임
 - 또한 Bio-fouling(선체부착생물) 관리에 대한 IMO 협약 제정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연기로 인해 협약 채택을 위한 향후 논의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됨

이경미 연구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kmlee@kmi.re.kr / 051-797-4644)

참고 자료

- a) http://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Coronavirus.aspx (검색일: 2020.3.16)
- b)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4-Covid-19-IMO-meetings-.aspx (검색일: 2020.3.19)
- c) http://www.ics-shipping.org/docs/default-source/resources/coronavirus-(covid-19)-guidance-for-ship-operators-for-the-protection-of-the-health-of-seafarers.pdf?sfvrsn=6 (검색일: 2020.3.17)
- d)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7757&boardKey=10&menuKey=971¤tPageNo=1 (검색일: 2020.3.21)